

현대차·한국지엠 140억 쾌척... 부품업계와 상생 나서

산업부-중기부, 특별보증 협약식

중소 4200억 보증 프로그램 가동
유동성 부족 정책 사각지대 투입



카허 카젠 한국GM 사장이 11일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지엠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자동차 부품업계를 위해 140억원을 쾌척했다. 그밖에도 미래차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상생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부는 11일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강당에서 '자동차 부품 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보증 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는 자동차 부품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품 기업 상생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5000억원 이상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완성차 기업이 240억 원을, 정부가 200억원, 지자체가 95억 원을 출연하는 등이다.

이날 협약식은 이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화한 4200억원 규모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대차그룹이 100억원, 한국지엠도

40억원을 부품 기업을 위해 내렸으며, 지자체도 약 70억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조성된 자금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부품 기업과 해외 공장 생산 차질로 인해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견 기업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을 위해 사용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완성차 업체가 지역별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등이 추천하는 1~3차 협력업체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1000명 이하 부

품 기업이다.

신용 등급보다는 해당 기업 업력과 기술역량, 납품기업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기업 당 지원 금액은 연간 매출액 25~33% 수준으로 책정했다. 운전 자금은 최대 30억원, 시설 자금은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과 접수는 6월 18일부터 전국 기술보증보험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 제출 후 약 1주일 간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

행과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도 기술보증기금 자체적으로 보증료 0.3% 포인트 감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 0.2% 포인트 보증료 추가 인하 등 혜택도 주어진다.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기업들은 수레바퀴 물에 빠진 물고기와 같이 학철부어의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당장의 물 한 사발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하다"면서 "부품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기술력과 납품 역량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도 위기를 견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견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도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6월 중에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상생특별보증 협약이 정부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동반성장 플랫폼을 확고히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상한기업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공존과 상생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진행했던 지원 프로그램에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3월부터 2개월여간 'P-CBO' 프로그램으로 40여개 기업에 약 1700억원, 국책은행의 한도의 대출 프로그램과 만기 연장 등으로 약 5조원을 공급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신용 등급이 낮거나 해외 공장 차질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불안을 겪는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

자동차 업계도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빠진 협력사들을 지원할 필요성을 체감했고, 꾸준히 이어온 상생 의지를 다시 한 번 지켜내기 위해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도 대규모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중기부의 '자상한기업'에 선정돼 부품 업체와 협력사들과 다양한 상생 노력을 이어온데 이어, 다시 한번 대규모 지원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의지를 보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국내 車생산 36.8% ↓... 17년만에 수출 10만대 미만

산업부, 5월 자동차산업월간 동향 美·中 등 생산국 대비 비교적 선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5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6.8% 급감했고, 수출은 17년만에 10만대 밑으로 곤두박질 쳤

다.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 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11일 산업부의 '5월 자동차산업월간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6.9% 감소한 23만1099대로 집계됐다.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량 조정과 징검다리 휴업 등 조업일 수 감소, 일부 업체 부품 재고부족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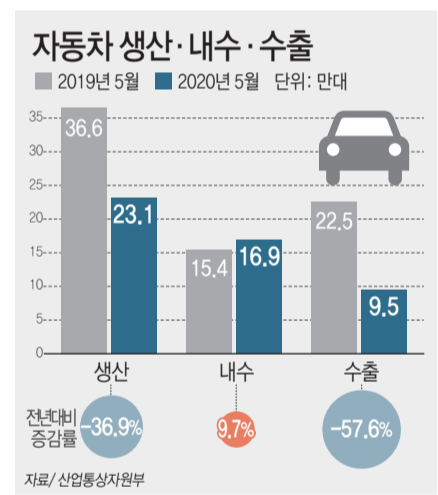
른 생산차질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1~4월 누적 생산을 보면, 우리나라는 -17.3% 감소세를 보여 중국(-33.5%), 미국(-33.3%), 프랑스(-51.5%), 독일(-43.3%), 일본(-16.6%)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57.6%

감소한 9만5400대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 대수가 10만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3년 7월(8만6074대) 이후 약 17년만에 처음이다. 주요국 자동차 달러매장의 순차적인 영업 재개에도 불구하고 4월 현지 수요 급감에 따른 재고물량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용수 기자 hys@



장흥군 공고 제2020 - 442호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부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장흥군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부지를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15.

장 흥 군 수

1. 장흥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921.2	-	2,921.20	100	
계획관리지역	-	중) 2,921.2	2,921.20	100	
농림지역	2,921.2	감) 2,921.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884-3번지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역	2,921.20	100 이하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조성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A	부산면 행정복지 센터	공공 청사	장흥군 부산면구룡리 884-3번지	-	2,921.20	2,921.20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부산면 행정복지 센터	· 신설 - A= 2,921.2㎡	· 노후화된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을 통해 양질의 복지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40% 이하	100% 이하	2층 이하

3. 공람장소 및 의견청취 기간

가. 공람장소 : 장흥군청(재무과),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나. 의견청취 기간 : 2020. 6. 15 ~ 2020. 6. 28 (14일간)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의견청취 기간 내
나.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공람 후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5. 공람도서 및 주민의견 제출서식 : 공람장소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재무과(☎061-860-57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